

KIEP 한중경제 포럼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3-12 / 2003년 12월 11일

2003년 중국경제 회고와 2004년 전망

무하이핑(慕海平)

거시경제연구원 科研部 주임

I. 발표요지

1. 2003년도 중국경제 발전상황

- 사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을 보여 1~3분기 동안 8.5% 성장을 기록함.
- 1/4분기는 WTO 가입 효과, 부단한 체제개혁 심화, 새로운 소비문화 형성 등으로 2조 3,562억 元의 GDP를 달성, 전년동기대비 9.9% 성장함.
- 2/4분기는 사스의 영향으로 인해 다소 주춤하였으나 중앙정부의 과감한 조치 등으로 2조 6,491억 元의 GDP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함.

*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심층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경제포럼>을 운영, 매월 정기 세미나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유관부처의 고위관리 및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며, 한국측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부문 인사, 한국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3/4~4/4분기에는 사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1~3분기 GDP는 7조 9,113억 元, 8.5% 증가를 기록함.

<표-1> 2003년 1/4~3/4분기 GDP 및 산업별 비중

			절대치 (억 元)	성장률 (%)
1/4분기	GDP		23,561.6	9.9
		1차 산업	1,630.7	3.5
		2차 산업	13,414.1	12.3
		3차 산업	8,516.8	7.6
2/4분기	GDP		50,052.7	8.2
		1차 산업	4,753.5	2.7
		2차 산업	28,799.8	11.6
		3차 산업	16,499.3	4.2
3/4분기	GDP		79,113.73	8.5
		1차 산업	9,486.63	2.8
		2차 산업	43,692.89	11.8
		3차 산업	25,934.22	5.4

주 : 절대치는 현재가로 산정, 성장률은 불변가격으로 산정함.

- 산업별로는 모든 부문에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2차 산업은 수출 및 투자부문의 높은 증가에 힘입어 공업증가율이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4.3% 포인트 상승함.
- o 농업부문은 안정적이며 진일보한 구조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반면, 사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서비스산업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o 한편, 공업부문 가운데 중공업생산량은 경공업(13.9%)보다 높은 전년동기 대비 18.4%의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효과는 매우 미약함.

□ 금년 1~3분기 전사회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3조 4,251억 元으로 전년동기 대비 30.5% 증가함(2002년 동기간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8.7%포인트 상회).

- 이는 지난 6년간 지속된 확대재정정책,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에서 비롯됨.
- o 또한, WTO 가입 및 중국경제전망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으로 FDI가 크게 증가, 1~3분기 FDI 규모는 실행액 기준 40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1.9% 증가), 계약액 기준 792억 달러(동 36% 증가)임.

<표-2> 2003년도 중국 고정자산투자 현황

(기간 : 2003년 1~10월)

구 분		실행액(억 元)	증가율(%)	비중(%)
가. 투자 실행액		30,466.52	30.2	100
1. 계획관리 부문별	기초건설	15,936.94	28.6	52.3
	수리·개조	5,911.37	34.1	19.4
	부동산 개발	7,367.08	31.3	24.2
	기타 투자	1,251.12	27.0	4.1
2. 관리기관별				
	중앙 프로젝트	3,565.71	-14.0	11.7
	지방 프로젝트	26,900.80	39.7	88.3
3. 건설형태별				
	신규건설	11,726.98	34.8	50.8
	확대건설	6,815.86	32.9	29.5
	개·보수	3,449.44	16.1	14.9
나. 총자금 규모		34,015.71	41.7	100.0
국가 예산		1,770.54	2.7	5.2
국내 차관		8,190.64	47.0	24.1
채 권		103.31	-29.3	0.3
	외 자	1,636.59	31.7	4.8
F D I		1,170.76	39.5	3.4
자체 조달		16,218.78	47.7	47.7
	자체보유자금	10,370.67	48.6	30.5
	주식발행	83.70	-7.0	0.2
기타 자금		6,095.85	40.5	17.9
다. 未실행액		3,615.42	28.6	10.6

주 : 1) 기초건설, 수리·개조, 기타 투자부문에는 도·농 집체 및 개인투자 未포함.
 2) ‘가. 투자 실행액’의 ‘3. 건설형태별’ 분류에는 부동산투자 未포함.

-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기업 및 비영리부문의 자체적인 자금조달 비중이 1~10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21% 포인트 상승한 반면, 정부예산 비중은 약 40% 포인트 하락함.

□ 1~3분기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은 3조 2,699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함으로써 지난해와 비슷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함.

- 현재 부동산, 자동차, 전자통신제품 등이 주요 소비품목으로 등장하고 있어 향후 소비의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임.

o 또한, 정부의 주민소득 증가와 최저생활보장대책 강화에 따른 소비의 경

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점차 늘어날 것임.

- 최근 들어 IT부문을 비롯하여 교육, 오락, 문화, 교통·통신, 의료·보건, 주택, 관광 등과 관련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1~3분기 수출·입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36.2% 증가한 6,062.6억 달러인데, 그 중 수출 3,077억 달러, 수입 2,985.6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각각 40.5%와 32.3% 증가함.

-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원인은 첫째,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수입관세율 인하, 둘째, 국내 수요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음.
- 수출에서는 지속적인 WTO 가입 효과 속에 당초 성장 전망치(10% 내외 증가)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일반무역 수출이 32.9% 증가함으로써 가공무역 수출(31.3% 증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09억 달러가 감소한 91억 달러를 기록함.
- 무역흑자 감소는 높은 수출증가율과 외환보유고를 감안할 때,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표-3> 2003년도 수출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월		1~10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수 출 입	761.2	38.1	6,823.3	36.4
수 출	409.3	36.7	3,486.0	32.8
수 입	351.9	39.7	3,337.3	40.4
무역수지	57.3	20.8	148.7	-40.0

□ 금융·통화 부문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서 담당했던 역할을 통화정책이 대체하게 됨.

- 과거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안정정책을 강조하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시장 및 기업주도하의 활발한 투자증가 속에 거시경제정책의 운용방향이 재정정책 위주에서 벗어나 통화정책 위주로 전환됨.
 - 2003년 9월말 현재 총통화(M2) 잔액은 전년동기대비 20.7% 증가한 21조 4,000억 원이며, 통화(M1) 잔액은 7조 9,000억 원으로 18.5% 증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현금(M0)은 1조 8,000억 원으로 12.8% 증가함.
 - o 전체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은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한 21.5조 원이며, 2003년 1~9월 예금액(누계기준)은 전년동기대비 8,807억 원이 증가하여 3조 2,000억 원을 기록함.
-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1~3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7% 상승했고 사회상품 소매물가는 0.5% 하락함.
- 그 중, 식품과 서비스 항목의 가격은 각각 2.2% 상승하여 전체 물가지수의 0.7% 포인트와 0.5% 포인트 상승을 견인함.
- 2003년 1~10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의 생산 및 매출 현황은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경제적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됨.
- 공업부문의 전반적인 경제적 효율성 지수는 142.3으로, 전년동기대비 14.2 포인트 상승하였고, 매출은 10조 원을 돌파함.
 - o 공업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7.9% 증가한 11조 1,223.5억 원에 달해 이미 2002년 전체 매출액을 초과함.
 - o 대다수 업종들이 지속적인 이윤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적자기업의 적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 2003년도 거시경제 운용상의 주요 특징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개선, 경제적 효익 제고, 재정수입 증가, 대외경제 발전, 주민소득 증가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함.

- 수출형 제품, 고기술 제품, 구조 고도화에 부합한 소비제품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며, 다수 공업제품의 수급구조가 다소 개선되고 제품의 생산·판매 비율도 다소 제고됨.

- 경제성장의 질적인 측면이 제고됨.

- 무역 및 외자 모두 계속하여 대폭 증가함으로써 외환보유고도 증가함.

<표-4> 2003년도 외환보유고 증가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외환보유고	3,044.6	3,082.5	3,160.1	3,262.9	3,400.6	3,464.8	3,564.9	3,647.3	3,838.6	4,009.9

- 도시와 농촌주민의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국내소비 확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함.

□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다수의 경제성장 제약요인들이 다소 개선되었고 경제시스템 내부의 자생적인 성장능력이 현저히 강화됨으로써 중국경제는 새로운 경제성장 상승기에 돌입하였음.

□ 주요 경제성장 제약요인

- 중국경제는 이미 시장수요의 한계에 직면하였고 최종적인 소비수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짐.

o 중국은 여전히 사회발전과 체제전환단계에 있는바, 국내수요의 증가는 구조개혁의 심각한 영향에 직면하고 제도 및 시장환경도 아직까지 완비되

지 않음.

- 이처럼 경제운용상의 뿌리깊은 모순과 체제적 한계는 중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신규 노동력자원 증가, 농촌 잉여노동력의 이전 가속화, 국유기업 정리해고자 증가, WTO 가입에 따른 단기적인 취업구조에의 영향 등으로 인해 취업난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소득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농촌주민의 소득 개선문제도 장기간이 소요됨.
- 경제의 시장화 속도에 비해 투·융자부문의 체제개혁이 뒤쳐져 있어 국유부문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한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
- 지방정부 세대교체가 완성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주도형 중복건설, 무책임한 생산확대 등 체제성투자가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임.
- 이는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잠재적인 금융리스크를 확대시키며 시장질서를 왜곡하여 거시경제정책 및 기업의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2004년도 중국경제 전망

- 2004년도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방향은 정책적인 안정화 및 적절한 조정, 개혁의 심화와 개방 확대, 전국적인 문제점 해결 및 통일된 계획과 조화로운 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음.
- 2004년도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인 요인은 대략 다음과 같음.
-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의 전면적인 소강사회건설 목표 확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발전 의지가 활성화되어 경제발전에 대한 견인역할을 강화할 것임.
- 당 제16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완비를 위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혁과 체제혁신 작업이 가속화됨으로써

경제발전상의 체제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진일보된 경제발전 환경을 완비할 것임.

-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의 성장속도를 중시하는 동시에 취업, 정부지출, 민간지출, 금융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개혁과 정책적인 결합을 이룩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지속발전에 효과적인 정책적 기초를 제공함.
 - 시장 측면에서는 대외개방 확대와 민영경제 발전에 따른 독자적인 경제 성장의 기초와 역량이 점차 강화됨.
 - o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과 WTO 가입 효과 등은 중국의 경제규모를 더욱 확대시키며, 국제시장과 자원을 활용한 합리적인 자원 배치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질적 제고를 촉진함.
 - 국제경제환경 측면에서는 미·일·EU 등 3대 경제축의 경제가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음.
 - o 미국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세계경제의 바닥 탈출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EU경제도 지금까지의 침체에서 벗어나 다소 개선될 것임.
 - o 일본경제는 10년간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바, 2004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투자 및 소비가 확대되어 점진적인 회복이 전망됨.
 - 지속적인 고성장 유지와 투자 증가가 예상되며, 기업의 효율성도 대폭 향상되어 독자적인 투자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임.
- 전반적으로 볼 때, 2004년도 중국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2004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하반기 들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7~8%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03년 4/4분기 경제성장률도 대체로 1~3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

상되어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8.5% 이상일 것임.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경제의 주요 성장부문 및 요인은 다음과 같음.

- 대중적인 소비수요 만족을 목표로 하는 주택, 자동차, 전자통신 및 기타 소비재산업이 이미 새로운 고성장산업으로서 자리를 굳힘.
- 중국시장의 규모가 진일보 확대될 것임.
 - 공·농업의 전통산업부문 생산량은 이미 세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전화를 포함한 고기술 제품의 생산 및 판매량도 선두에 위치함.
 - 국내시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함.
-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 새로운 경제성장단계에 진입함.
 - 최근 몇 년간 산업클러스터가 급속히 발전하여 다수 산업의 원가를 대폭 절감시킴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함.
- 산업과 도시발전간의 상호작용은 기간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帶의 형성과 확장을 촉진할 것임.
 - 다수의 산업이 고속 성장함으로써 주변 도시지역 규모와 기능의 확대도 가속화될 것임.
 - 새로운 고성장산업과 관련된 현대적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엄청난 수요는 도시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이 될 것임.

II. 토론 요지

問 : 발표자께서는 새로운 투자인기 품목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인가?

답 :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기있는 투자부문은 첨단기술 부문임.

최근들어 중화학공업, 자동차, 주택건설 등에서도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 주택 보유 추세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성장가능성이 매우 큼. 자동차 보유 수준이 한국 수준에 이르는 시점은 2015년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원자재, 기계가공산업도 크게 발전하는 등 전반적으로 중화학공업 위주의 발전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특히 주택건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철강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예상됨. 전반적으로 볼 때, 소비부문에서는 자동차, 주택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생산부문에서는 철강 등 원자재 부문에서의 증가가 예상됨. 이와 같은 새로운 발전단계로의 전환은 정부 투자에 의한 것이 아닌 민간투자에서 비롯된 것임.

問 : 경기과열론에 따른 중국정부의 새로운 대책 또는 정책은 언제쯤 그리고 어떠한 방식과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답 : 단기적으로 대규모의 조정은 불가능할 것이나,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것임. 따라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산업지도목록정책의 변화도 없을 것으로 봄. 특히 과열 부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과연 현재 경기과열 현상이 존재하는가 의문이 생김. 다만, 지방정부의 투자과열 현상 및 투자유치를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투자 대상 산업 및 지역에 대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問 : 국유기업의 투자는 정부 또는 민간투자 중 어느 부문에 포함되는가?

답 : 투자를 구분하는 일치된 기준은 없으나, 대략적으로 민간과 정부부문의 구분과 국유와 집계, 개인, 외자부문으로의 구분이 존재함. 현재 통계상의 '국유투자' 부분은 정부투자로 간주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국유투

자 부문은 순수한 정부투자는 아니나 정부가 일정부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자로 간주하는 것임. 실제로는 집계, 사영, 외국인투자를 민간투자 부문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국유투자 부문임.

問 : 금년 들어 이루어진 정부투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答 : 금년도 정부투자의 대표적인 예는 서기동수(西氣東輸), 남수북조(南水北調)사업이 있는데, 실제로는 일부 정부투자자와 함께 개인 및 은행투자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정부 주도하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그 책임도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자로 간주함.

問 : 금년에도 중국은 미국과의 대외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마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앞서 내년도 중국의 무역정책을 무역흑자 축소, 무역균형 등으로 설명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정책은 무엇인가?

答 : 중국정부는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고려하여 대략 3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첫째, 중대형 국유기업들에게 국제시장에서의 물자조달을 권장하는 등 수입촉진정책을 실시하고, 둘째, 수출세환급률을 인하하며, 셋째, 해외투자를 가속화할 것임. 중국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대외수출 확대에 있음. 그러나, 무역불균형 해소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바, 주로 환율을 활용한 해결보다는 통상수단을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미국에 대해 중국이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신기술 부문에 대한 수출억제 완화를 요구함. 반면, 중국에서도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는 대두와 같은 농산물의 수입 가능성은 매우 적음.

問 : 중국은 올해 들어 지난 6년 동안 실시해온 재정확대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하였으나, 올해 초 발표한 국채발행계획은 2001~2002년 수치와 비교

할 때 큰 차이가 없음. 지금까지의 국채발행 규모는 얼마인가? 또한, 중국정부가 올해 초 내놓았던 거시경제 환경 및 운용에 대한 전망과 실제 운용상의 차이점, 문제점 또는 오류 부분은 무엇인가?

답 : 올해 중국정부가 발행한 국채규모는 1,400억 元에 이르는데, 이는 지난해(1,500억 元)와 비교하여 100억 元이 감소한 수치임. 또한, 내년도 전인대에서는 국채발행규모가 200~300억 元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감소 수치는 절대치로 볼 때 큰 감소는 아니나, 향후 투자방향의 변화 또는 조정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구체적으로는 과거와 달리 동북老공업기지, 교육·문화사업 등 사회발전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이는 중앙정부의 기능 조정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향후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보다 공공정책 및 사회발전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통상 중국정부의 경제전망에 관한 예측은 매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과학기술이 매년 발전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로서, 그러한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일부 예측치들이 실제와 어긋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올해 초 경제성장률이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로는 8~9%의 성장을 기록함. 이러한 오류는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중국정부가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여지를 남겨두는(留有餘地) 중국적인 철학사상에서 찾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주로 향후 년도의 경제적 추이를 예상할 뿐, 구체적인 증감율은 개별적인 예측 부문으로 남겨두고 있음. 다만, 금년도 경제전망에서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스에 따른 영향 부문에 있음.

問 : 한국이 중국과의 대외무역에서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對韓 무역마찰 및 분쟁의 소지는 없는가? 또한, 향후 무역균형을 위해

중국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답 : 동 사안은 상무부 소관으로, 본인은 對韓 무역적자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입장에 있지 않음. 다만, 중국정부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대외무역 균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와의 무역 불균형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양국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가능하며, 구체적 해결 방안도 양국간 협상에서 이루어질 것임.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정부는 중국의 10大 무역상대국 중 7.4%(200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무역관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問 :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전력량 부족 문제가 내년도 경제발전에 미칠 영향과 구체적 예측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동 사안이 내년도 경제계획부문에 포함되어 있는가?

답 : 전력難 문제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일정기간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임.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문제로서, 8.5%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문제라고 봄. 특히, 여름과 같은 특정 계절과 에어컨을 과다 사용하는 특정 지역 등에서의 전력난 문제는 더욱 심각함. 이러한 문제는 중국의 정책적인 오류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바, 수년전 발전소 과다 건설로 인한 전력과잉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중국 정부는 당시의 경제성장율을 감안하여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억제한 바 있음. 그러나, 예상 밖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전력난이 발생함. 따라서, 내년에도 8~8.5%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한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첫째, 수력발전을 권장하고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억제하는 범위에서 전력공급량의 확대, 둘째, 전기이용가격의 인상, 셋째, 전력공급의 지역별·시간별 조정, 넷째, 심각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과다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의 성장을 억제함. 장기적으로는 전력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발전소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問：對韓 무역적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答：현재 중국에 진출한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많은 부품 및 중간재를 수입하고 있음. 이와 함께 금후 한중간의 경제적 보완성이 여러 분야에서 확대·심화될 것임에 비추어 조만간 對韓 무역적자는 무역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